

■ **화제의 인물**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는 남부중고등학교 재학생들

“만학도의 꿈 꼭 이루겠습니다”

50~70대 만학도 60여 명 시험 앞두고 열공

재원 시설 부족… 뜻있는 독지가 도움 절실

어둠살이 내려앉던 저녁 무렵, 문현3동에 위치한 '부산남부중고등학교'(교장 김달현)를 찾았다. 남들은 퇴근 준비로 들뜬 때지만 이곳 교사와 학생은 제2의 하루를 시작하느라 분주하기 이를 데 없다.

학업시기를 놓쳐버린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곳이다. 자원봉사하는 교사들이 청소를 하는 동안 책가방을 든 늦깎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맞춰 하나 둘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만학도들의 열기가 젊은이들 못지않다.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진 60여 명이 오는 8월에 있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느라 책과 씨름하며 학업열을 불태운다.

기자가 찾아간 그날은 모교를 찾은 선배들과 재학생들 간의 환담회가 있는 날이었다. 조금은 여유 있어 보이는 선배들의 표정과 재학생들의 형형한 눈빛이 만나 희망과 용기를 나누었다.

현재 동명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총동창회장 정애자(용호4동·57)씨는 “대입 과정을 마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이곳은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곳이다. 열심히 하는 길 밖에 없다”며 격려해 주었고, 대입반에 재학 중인 박영옥(용호2동·65)씨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데 책을 가까이하여 더없이 행복하다. 자녀들이 필통과 연필을 사주며 응원해 주어 용기를 가진다”고



4월에 치러지는 검정고시를 앞두고 졸업생 대표들이 모교를 찾아 밤늦도록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말했다.

졸업생 정연기(남천1동·67)씨와 김종분(우암1동·68)씨 역시 “가정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감

격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며 시적이 반임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기쁨은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35명의 전·현직 교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무보수로 이들을 가르치며 베품 목이 되어준다.

남부중고등학교는 지난 1972년 2월 전막학교를 시작으로 옛 남부경찰서 내 ‘남부실업학교’로 설립돼,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교화의 목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2008년 8월 문현동으로 이전하면서 생활교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을 위한 야학 전문기관으로 변모했다.

1,3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그중 상당수는 대학진학의 꿈을 이뤘고, MIT공대 박사 학위 취득자도 탄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느 검정고시학원 못지않은 좋은 성과이다. 이제 이곳에 청소년 야학생은 5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배움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그러나 부산 남부경찰서가 최근 청사 이전과 함께 학교 운영을 포기하면서 학교 운영은 큰 벽에 부딪히게 됐다.

다행히 2009년부터 남구청에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고, 지난해부터 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성민문화재단과 함께 선정됐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622-1205, 010-4543-4746

김정화 기자

성실납세 국세청장상 받아

문현2동 선형상사 백호정 대표

백호정 문현2동 선형상사 대표가 지난 5일 국세청장으로부터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백 대표는 신발골 전문 제작 업체 선형상사를 운영해 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 국가재정에 크게 이바지 해 온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지역 중소기업인 중 유일하게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됐었다.

백 대표는 “23년간 업체를 운영해 오며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기업인의 기본 도리라고 여기고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투명 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임·직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백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선형상사는 신발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외 유명 신발 브랜드에 납품하며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장애인과 선·후천성 발 기형, 당뇨병자 등을 위한 맞춤형 기능성 신발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선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업자원부 지원 업체로 선정됐으며 미 육군성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633-1021

전쟁 아픔 달랜 운동회 기억 활짝



사진과 나

대연3동 문영백 씨

1953년 대연국민학교(지금의 대연초등학교) 6학년 가을 운동회로 기억한다. 운동에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운동회에서 6학년 남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매스게임(massgame)·집단으로 하는 맨션체조나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생님이 호각을 불면 물구나무를 서야했는데 동작이 어려워 무척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행사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한국전쟁 발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절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운동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의 축제날이었다. 이날에는 명절 때나 맛볼 수 있는 찰밥을 맛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

당시 대연국민학교는 대연동 산성교회 뒤편에 목조건물로 자리하



고 있었다. 한 학년에 3학급이 있었고 학생수는 200여 명이었다. 나는 당시 용소마을에 살고 있어서 3학년까지는 대연국민학교 용호분소에 다녔다.

현재의 용호초등학교 정문에 있던 용호분소에는 용소마을과 용호동 등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

다. 4학년이 되면 본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전쟁 중에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학교에 국군이 주둔하면서 대연 못골 주변 아산이 교실이 되었다. 당시 큰 연못과 묘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학습관을 들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학습관은 미군들의 우유 포장지로 사용했던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다. 대각선으로 구멍을 내고 끈을 달아 한쪽 어깨에 메고 다른 쪽으로 도시락과 책이 든 보자기

를 땀었다. 수업이 끝나면 학습관은 잔디밭을 타고 내려오는 놀이 가구로도 사용됐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한반에 10명 가까이 있었다. 이들은 간단한 산 쪽 옛 예비군훈련장 부근에 있었

던 '남랑학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UN공원이다. 전쟁 중에 사망한 UN군 시신이 전국의 전쟁터에서 모여들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바람을 타고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전몰용사들의 시신을 감쥔던 담요는 몰래 사회로 반출돼 세탁한 후 상의와 바지로 만들어 입었다. 그래서인지 등 쪽에 'US ARMY'라는 영어철자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김옥련 기자

“또래 친구 많이 사귄래요”

아시아공동체학교 입학한

문현4동 박정화 어린이

문현4동에 살고 있는 박정화 어린이는 초등학교 새내기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에 입학한 정화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공부도 재밌지만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가장 재밌어요. 늘 정답게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도 즐거워요”

정화의 단짝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동갑내기 파리지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림질반에서 기초 한글을 배운 파리지다라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정화는 파리지다와 틈나면 얘기를 나누며 피부색과 나라의 달라도 우정을 나누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지구촌 가족’이란 개념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학교 오빠와 언니들과도 수시로 만나 교우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을 배우고 있다.

정화는 주지교과 수업과 예제는 수업 등 다채로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수업은 종이접기 시간이다. 인지능력을 타고난 정화에게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정화가 일반학교가 아닌 아시아공동체학교로 입학하게 된 것은 부모



의 권유에 의해서다.

정화의 아버지 박진국씨와 어머니 이민정씨는 정화가 훌륭한 국제시민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정화를 지식과 덕망을 갖춘 세계인으로 키우는 데 적격이란 판단에서다. 답답교사 황수미씨는 정화는 야무지고 책임감이 강하며 친화력도 갖추고 있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화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정화가 부모의 바람과 선생님의 교육 방침처럼 세계무대의 주역이 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정화가 다니고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지난해 위탁형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아 원어인 교사들이 영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세계 무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윤희 기자

가슴 따뜻한 복지사로 동분서주

오록도 친절지기

용호4동 이정아 씨

봄 향기를 담은 3월의 친절카드 주인공은 용호4동 이정아(지 방사회복지사·31)씨.

이씨는 “말은바 소임을 다 했을 뿐 한 것도 없는데 동료와 주민들의 협조 덕에 칭찬을 듣는 것 같다”며 수줍게 웃는다.

이씨의 친절과 배려는 한 중년 여성이 보내온 친절카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주민 노옥련씨는 얼마 전 용호4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집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만큼 더러워 치울 엄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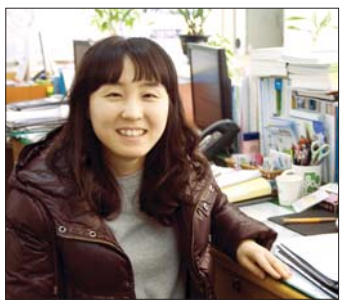
관심과 배려의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

지역사회와 연계 소외계층 돕기 나서

가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런 사실을 접한 이씨는 지역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자활센터와 집수리 봉사단체를 연계해 노씨 가정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자립하게 집 도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씨는 이후로도 이씨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편지를 썼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씨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달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때로는 법적 부분이나 제도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안타깝기도 하지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복지철학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사실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다 보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복지가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도움이

최정순 기자

동해참가자미희집

대표 : 김성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56-20번지

단체환영 ☎633-0151

참가자미희	특대 : 100,000 / 대 : 80,000
중 : 60,000 / 소 : 50,000	
모듬회	특대 : 100,000 / 대 : 80,000
중 : 60,000 / 소 : 40,000	

점심특선 : 13,000
생우럭탕 : 10,000
당면밥 : 8,000
가자미물회 : 10,000

신용, 경성대방망, 마이마트, 생대미프리카, LPG충전소, 동해참가자미희집, 롯데슈퍼, 동명아이티온아이마트

조상영 웃음연구소

웃음치료와 유머화법 무료 공개 강의

3월 26일(월)
4월 2일(월)
4월 9일(월)

특별강연 접수중(행사, 연수, 모임 등)

-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웃음치료과정 지도교수
- *2011년 웃음 명강사 선정
- *2011년 웃음으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수강시간(9시~11시) (매주 월요일 무료 강좌)

구분	강의 시간
월요일 오전반	오전 10시30분~12시
월요일 저녁반	오후 7시~8시30분

* 특별수강료 3개월 9만원

웃음치로서 1급, 유머화법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TBN 교통방송(94.9MHz) 매주(토) 오전 10시 <웃어요! 웃어봐요> 생방송 출연중 -

조상영 웃음연구소 : 611-3600, 010-4567-2233(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카페명 :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 http://cafe.daum.net/johahahoho)

윌리스윙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 피부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간호조무사

노동부지정 남·여 국비훈련생 모집(주간반, 야간반)

-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 훈련비 75% 지원, 본인부담 25%(교재, 실습복 비용포함) 훈련수당 월 11만 6천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100% 국비지원 월20만원 한도의 생계유지비 지원(6개월간)
- ◆직장인 국비환급과정 : 국비지원 계좌제/직무능력 향상교육

가장고귀하고 아름다운 꿈의실현

대연메디칼간호학원
http://www.medicalganho.co.kr

대연캠퍼스 051)637-6601 경성대, 부경대역 5번출구 비전프라자 9층	서면캠퍼스 051)819-6601 서면역 주디스타워 맞은편 미니몰 옆 통일빌딩 6층	남포캠퍼스 051)246-6601 남포동역 1번출구 남포문고 옆 솔레마빌딩 7층
--	--	--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와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